

일곱 주(主)영

THE SEVEN MASTER SPIRITS

16:0.1 낙원천국의 일곱 주(主)영들은 무한 영의 1 차 개인성들이다. 이 칠중 창조적 자아-복제(複製) 활동에서, 무한 영은 신(神)의 세 개인들의 사실적 실재 안에 수리(數理)상으로 선천적인, 연합하는 가능성을 다 소모시킨다. 더 큰 숫자의 주(主)영들을 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들은 창조되었을 것이지만, 단지 일곱 연합하는 가능성들만이 있고, 오직 일곱 만이 세 신(神)들 안에 선천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가 왜 광범위한 일곱 부분들로 작동되는지를 설명하며, 7 이라는 숫자가 왜 그 조직과 관리에 기본적으로 기초가 되는가를 설명한다.

THE Seven Master Spirits of Paradise are the primary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In this sevenfold creative act of self-duplication the Infinite Spirit exhausted the associative possibilities mathematically inherent in the factual existence of the three persons of Deity. Had it been possible to produce a larger number of Master Spirits, they would have been created, but there are just seven associative possibilities, and only seven, inherent in three Deities. And this explains why the universe is operated in seven grand divisions, and why the number seven is basically fundamental in its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16:0.2 그래서 일곱 주(主)영들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닮음에서, 그들의 기원을, 그로부터 유래된 그들의 개별적 특징들을 가진다:

The Seven Master Spirits thus have their origin in, and derive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from, the following seven likenesses:

1. 우주 아버지.
2. 영원 아들.
3. 무한 영.
4. 아버지와 아들.
5. 아버지와 영.
6. 아들과 영.

1. The Universal Father.
2. The Eternal Son.
3. The Infinite Spirit.
4. The Father and the Son.
5. The Father and the Spirit.
6. The Son and the Spirit.
7. The Father, Son, and Spirit.

7.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

- 16:0.3 우리는 주(主)영들의 창조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활동을 거의 알지 못한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무한 영의 직접적 활동에 의해 실재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들의 기원에 참여하였다고 분명하게 배워 왔다.
- 16:0.4 영 성격과 본성에서, 낙원천국의 이들 일곱 영들은 하나와 같지만, 다른 모든 정체성의 측면들에서 보면 그들은 매우 다르며, 초우주들 안에서의 그들 기능의 결과들은 각자의 개별 차이점들이 뚜렷이 식별될 정도이다. 거대우주의 일곱 부분들의 차후계획들은 —그리고 외부 공간의 상관되는 구획들까지도— 최극이며 궁극 감독의 이들 일곱 주(主)영들의 영적—이외의 다양성에 의해 조건을 갖추어왔다.
- 16:0.5 주(主)영들은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지만, 현재에 있어서 그들의 당면한 권역은 일곱 초우주들에 대한 중앙 감독이다. 각각의 주(主)영은 거대한 기세-초점 본부를 유지하는데, 그것은 낙원천국의 주변을 서서히 돌고 있고, 언제나 즉각적으로 감독하는 초우주 맞은편에서, 그리고 특유한 힘을 조절하고 분할 에너지를 분배하는 낙원천국 초점에, 장소를 유지한다. 어떤 초우주의 방사 경계선도 감독하는 주(主)영의 낙원천국 본부에서 실질적으로 모아진다.
- We know very little about the action of the Father and the Son in the creation of the Master Spirits. Apparently they were brought into existence by the personal acts of the Infinite Spirit, but we have been definitely instructed that both the Father and the Son participated in their origin.
- In spirit character and nature these Seven Spirits of Paradise are as one, but in all other aspects of identity they are very unlike, and the results of their functioning in the superuniverses are such that the individual differences of each are unmistakably discernible. All the afterplans of the seven segments of the grand universe -- and even the correlative segments of outer space -- have been conditioned by the other-than-spiritual diversity of these Seven Master Spirits of supreme and ultimate supervision.
- The Master Spirits have many functions, but at the present time their particular domain is the central supervision of the seven superuniverses. Each Master Spirit maintains an enormous force-focal headquarters, which slowly circulates around the periphery of Paradise, always maintaining a position opposite the superuniverse of immediate supervision and at the Paradise focal point of its specialized power control and segmental energy distribution. The radial boundary lines of any one of the superuniverses do actually converge at the Paradise

headquarters of the supervising Master Spirit.

1. 삼원일체(三元一體) 신(神)에 대한 관계

1. RELATION TO TRIUNE DEITY

16:1.1 공동창조주, 무한 영은 미(未)분화 신(神)의 삼원일체(三元一體) 개인성구현의 완성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삼중적 신(神) 개인성구현은 개별적 그리고 연합적 표현의 가능성에서 선천적으로 칠중(七重)이며; 따라서 지능 존재들에 의해 그리고 잠재적으로 영적 존재들에 의해 거주되는 우주들을 창조하려는 그 이후의 계획은,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표현이고, 일곱 주(主)영들의 개인성구현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우리는 신(神)의 삼중(三重) 개인성구현을 절대 필연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반면, 일곱 주(主)영들의 출현을 하위절대 필연성으로 보게 되었다.

The Conjoint Creator, the Infinite Spirit, is necessary to the completion of the triune personalization of undivided Deity. This threefold Deity personalization is inherently sevenfold in possibility of individual and associative expression; hence the subsequent plan to create universes inhabited by intelligent and potentially spiritual beings, duly expressive of the Father, Son, and Spirit, made the personalization of the Seven Master Spirits inescapable. We have come to speak of the threefold personalization of Deity as the *absolute inevitability*, while we have come to look upon the appearanc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as the *subabsolute inevitability*.

16:1.2 일곱 주(主)영들이 삼중(三重) 신(神)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그들은 칠중(七重) 신(神)에 대한 영원한 묘사, 신(神)의 항상-실재하는 세 개인들의 활동적이고 연합적인 기능들이다. 이 일곱 영들에 의해, 그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우주 아버지나 영원 아들이나 무한 영이나, 또는 어떤 이원적(二元的) 연합이든지 그렇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함께 활동할 때, 그들은 제 7 번 주(主)영을 통해 기능할 수 있고 또 그렇게

While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hardly expressive of *threefold* Deity, they are the eternal portrayal of *sevenfold* Deity, the active and associative functions of the three ever-existent persons of Deity. By and in and through these Seven Spirits, the Universal Father, the Eternal Son, or the Infinite Spirit, or any dual association, is able to function as such. When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act together, they can and do function through Master Spirit Number Seven, but not as the Trinity.

하지만, 삼위일체로서는 아니다. 단독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주(主)영들은 어떤 그리고 모든 가능한 단독이며 저마다의 그러나 집단적이 아니고 삼위일체도 아닌, 신(神) 기능을 대표한다. 제 7 번 주(主)영은 낙원천국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기능이 없으며, 이것이 바로 그가 최극존재를 위해 **개인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이다.

The Master Spirits singly and collectively represent any and all possible Deity functions, single and several, but not collective, not the Trinity. Master Spirit Number Seven is personally nonfunctional with regard to the Paradise Trinity, and that is just why he can function *personally* for the Supreme Being.

16:1.3 그러나 일곱 주(主)영들이 그들의 개인적 힘과 초우주 권한의 개별적 보좌를 비우고 낙원천국 신(神)의 삼원일체(三元一體) 현존으로의 공동행위자 주변에 모이면, 그 때 거기에서 그들은 진화하는 우주들에 대한 그리고 우주들 안에서 나뉘지 않은 신(神)-삼위일체-의 기능적 힘, 지혜와 권한을 집단적으로 대표한다. 신(神)의 시원(始原)적인 칠중적 표현에 대한 그러한 낙원천국 결합은 최극위 안에서 그리고 궁극위 안에서 세 영원 신(神)들의 각 속성 그리고 태도 전체를 실제적으로 포용하고, 글자 그대로 둘러싼다. 전체의 실용적 의향들과 목적들에 대하여 일곱 주(主)영들은, 그 때 그리고 거기에서, 그 주(主)우주에 대한 그리고 그 안에서 최극-궁극자의 기능적 권역을 둘러싼다.

But when the Seven Master Spirits vacate their individual seats of personal power and superuniverse authority and assemble about the Conjoint Actor in the triune presence of Paradise Deity, then and there are they collectively representative of the functional power, wisdom, and authority of undivided Deity -- the Trinity -- to and in the evolving universes. Such a Paradise union of the primal sevenfold expression of Deity does actually embrace, literally encompass, all of every attribute and attitude of the three eternal Deities in Supremacy and in Ultimacy. To all practical intents and purposes the Seven Master Spirits do, then and there, encompass the functional domain of the Supreme-Ultimate to and in the master universe.

16:1.4 우리가 식별하는 한, 이들 일곱 영은 신(神)의 영원한 세 개인들의 신성한 활동들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절대자의 영원한 세 위상들의 기능하는 현존들과 직접적으로

As far as we can discern, these Seven Spirits are associated with the divine activities of the three eternal persons of Deity; we detect no evidence of direct association with the functioning presences of the three eternal phases

관련되어 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한다. 연합되었을 때 주(主)영들은, 대체로 행동의 유한한 권역으로 생각해도 좋은 범위 안에서의 낙원천국 신(神)들을 대변한다. 그것은 궁극적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이 아닌, 많은 것을 포용한다.

of the Absolute. When associated, the Master Spirits represent the Paradise Deities in what may be roughly conceived as the finite domain of action. It might embrace much that is ultimate but not absolute.

2. 무한 영에 대한 관계

2. RELATION TO THE INFINITE SPIRIT

16:2.1 계속적으로 숫자가 증가하는 신성한 아들들의 개인들을 통하여 영원한 기원 아들이 계시되는 것과 똑같이, 무한 영 그리고 신성한 영은 일곱 주(主)영들 그리고 그들의 연합된 영 집단들의 경로들을 통해 계시된다. 중심들의 중심에서 무한 영은 접근될 수 있지만, 낙원천국을 달성한 모든 존재들이 그의 개인성 그리고 차별된 현존을 즉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앙우주에 도달한 모든 존재들은 일곱 주(主)영들 중 하나, 새롭게 도착한 공간 순례자들이 흘러져 나온 그 초우주를 주관하는 존재와 즉각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Just as the Eternal and Original Son is revealed through the persons of the constantly increasing number of divine Sons, so is the Infinite and Divine Spirit revealed through the channel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and their associated spirit groups. At the center of centers the Infinite Spirit is approachable, but not all who attain Paradise are immediately able to discern his personality and differentiated presence; but all who attain the central universe can and do immediately commune with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he one presiding over the superuniverse from which the newly arrived space pilgrim hails.

16:2.2 우주들의 우주에 대하여 낙원천국 아버지는 오직 그의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할 수 있는 반면, 그와 아들은 무한 영을 통해서만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다. 낙원천국과 하보나 밖에서는 무한 영은 오직 일곱 주(主)영의 목소리들로만 **말씀한다**.

To the universe of universes the Paradise Father speaks only through his Son, while he and the Son conjointly act only through the Infinite Spirit. Outside of Paradise and Havona the Infinite Spirit *speaks* only by the voice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16:2.3 무한 영은 낙원천국-하보나 체계의

The Infinite Spirit exerts an influence

한계 안에서 **개인적 현존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다른 곳에서는 그의 개인적 영 현존이 일곱 주(主)영들 중 하나에 의해 그리고 그를 통해 발휘된다. 그러므로 어떤 세계에서든지 또는 어떤 개별존재에 있어서든지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초우주 영 현존은, 그 창조 부분의 감독하는 주(主)영의 독특한 본성에 의해 조건을 갖춘다. 역으로 말해서, 영 기세와 지능의 병합된 계통들은 일곱 주(主)영들의 길을 따라 신(神)의 셋째개인을 향해 안으로 지나간다.

of *personal presence* within the confines of the Paradise-Havona system; elsewhere his personal spirit presence is exerted by and through on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herefore is the superuniverse spirit presence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on any world or in any individual conditioned by the unique nature of the supervisory Master Spirit of that segment of creation. Conversely, the combined lines of spirit force and intelligence pass inward to the Third Person of Deity by way of the Seven Master Spirits.

16:2.4 일곱 주(主)영들은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최극-궁극자 속성들을 집단적으로 타고난다. 각자가 이 자질을 개별적으로 갖는 반면, 그들은 오직 집단적으로만 전능, 전지, 그리고 전재(全在)의 속성들을 나타낸다. 그들 중 어느 하나가 우주적으로 그렇게 기능할 수 없다; 개별적으로 그리고 최극위와 궁극위의 이들 힘을 발휘함에서 각자는 즉각적 감독의 초우주에 개인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collectively endowed with the supreme-ultimate attributes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While each one individually partakes of this endowment, only collectively do they disclose the attributes of omnipotence, omniscience, and omnipresence. No one of them can so function universally; as individuals and in the exercise of these powers of supremacy and ultimacy each is personally limited to the superuniverse of immediate supervision.

16:2.5 공동행위자의 신성과 개인성에 관하여 너희에게 지금까지 이야기된 모든 것은 일곱 주(主)영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적용되는데, 그들은 그들의 신성한 자질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서로 다르고 개별적으로 독특한 본성들로 거대우주의 일곱 분할들에 무한 영을 매우 효과적으로 분배한다. 그러므로 무한 영의 어떤 또는 모든

All of everything which has been told you concerning the divinity and personality of the Conjoint Actor applies equally and fully to the Seven Master Spirits, who so effectively distribute the Infinite Spirit to the seven segments of the grand universe in accordance with their divine endowment and in the manner of their differing and individually unique natures. It would therefore be proper

이름들은 집합적인 일곱으로의 집단에 적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집합적으로 볼 때 그들은 모든 하위-절대 차원들에서 공동행위자와 하나이다.

to apply to the collective group of seven any or all of the names of the Infinite Spirit. Collectively they are one with the Conjoint Creator on all subabsolute levels.

3. 주(主)영들의 정체성과 다양성

3. IDENTITY AND DIVERSITY OF THE MASTER SPIRITS

16:3.1 일곱 주(主)영들은 설명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개인적이다. 그들은 이름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번호에 의해 그들을 소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무한 영의 1 차 개인성구현이라는 점에서는, 그들이 동족이지만, 삼원일체(三元一體) 신(神)의 일곱 가지 가능한 연합들에 대한 1 차 표현들에 있어서는, 그들이 본성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양하고, 본성에서의 이 다양성은 초우주 행위성에 관한 그들의 차이점을 결정한다. 이 일곱 주(主)영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indescribable beings, but they are distinctly and definitely personal. They have names, but we elect to introduce them by number. As primary personalizations of the Infinite Spirit, they are akin, but as primary expressions of the seven possible associations of triune Deity, they are essentially diverse in nature, and this diversity of nature determines their differential of superuniverse conduct. These Seven Master Spirits may be described as follows:

16:3.2 **1 번 주(主)영.** 특별한 의미에서, 이 영은 낙원천국 아버지의 직접적인 대표자이다. 그는 우주 아버지의 힘과 사랑과 지혜에 대한 독특하고도 효과적인 현시이다. 그는, 신성별에 있는 개인성구현된 조절자들의 대학을 관장하는 존재인, 신비 감시자들의 우두머리에게 가까운 동료이고 훌륭한 충고자이다. 일곱 주(主)영들의 모든 연합에서, 우주 아버지를 대변하는 것은 언제나 1 번 주(主)영이다.

Master Spirit Number One. In a special manner this Spirit is the direct representation of the Paradise Father. He is a peculiar and efficient manifestation of the power, love, and wisdom of the Universal Father. He is the close associate and supernal adviser of the chief of Mystery Monitors, that being who presides over the College of Personalized Adjusters on Divinington. In all association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it is always Master Spirit Number One who speaks for the

16:3.3 이 영은 첫 번째 초우주를 지배하며, 동시에 무한 영의 1 차 개인성구현의 신성한 본성을 확실하게 나타내는데, 무엇보다도 성격에 있어서 우주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첫 번째 초우주의 본부에서 일곱 반영 영들과 항상 개인적 연락을 이룬다.

16:3.4 **2 번 주(主)영.** 이 영은 영원 아들, 모든 창조 중 첫-태생의 비길 데 없는 본성과 매력적인 성격을 적절하게 묘사한다. 하느님의 아들이 우연히 거주 우주에서 개별존재들로서 있게 되거나 기쁨이 넘치는 비밀회의에 참여하게 되는 어떤 경우든지 그는 그들의 모든 계층들과 항상 긴밀하게 연합한다. 일곱 주(主)영들의 모든 연합체들 안에서 그는 항상 영원 아들을 대변하고 대신한다.

16:3.5 이 영은 2 번 초우주의 운명들을 지시하고 영원 아들이 그러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광대한 권역을 통치한다. 그는 두 번째 초우주의 수도에 위치한 일곱 반영 영들과 항상 연락을 이룬다.

16:3.6 **3 번 주(主)영.** 이 영(靈) 개인성은 무한 영을 특별하게 닮았으며, 그는 무한 영의 높은 개인성들 중 대부분의 움직임들과 활동들을 지시한다. 그는 그들의 모임들을 주재하고, 셋째근원이며 중심 안에서 배타적으로 기원되는 모든 개인성들과 긴밀하게 연합한다. 일곱 주(主)영들이

Universal Father.

This Spirit presides over the first superuniverse and, while unfailingly exhibiting the divine nature of a primary personalization of the Infinite Spirit, seems more especially to resemble the Universal Father in character. He is always in personal liaison with the seven Reflective Spirits at the headquarters of the first superuniverse.

Master Spirit Number Two. This Spirit adequately portrays the matchless nature and charming character of the Eternal Son, the first-born of all creation. He is always in close association with all orders of the Sons of God whenever they may happen to be in the residential universe as individuals or in joyous conclave. In all the assemblie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he always speaks for, and in behalf of, the Eternal Son.

This Spirit directs the destinies of superuniverse number two and rules this vast domain much as would the Eternal Son. He is always in liaison with the seven Reflective Spirits situated at the capital of the second superuniverse.

Master Spirit Number Three. This Spirit personality especially resembles the Infinite Spirit, and he directs the movements and work of many of the high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He presides over their assemblies and is closely associated with all personalities who take exclusive origin in the Third Source

회의에 참여할 때, 무한 영을 항상 대변하는 것은 3 번 주(主)영이다.

and Center. When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in council, it is Master Spirit Number Three who always speaks for the Infinite Spirit.

16:3.7 이 영은 3 번 초우주를 책임지며, 그는 무한 영이 그러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생긴 일들을 관리한다. 그는 세 번째 초우주의 본부에서 반영 영들과 항상 연락을 이룬다.

This Spirit is in charge of superuniverse number three, and he administers the affairs of this segment much as would the Infinite Spirit. He is always in liaison with the Reflective Spirits at the headquarters of the third superuniverse.

16:3.8 4 번 주(主)영. 아버지와 아들의 병합된 본성들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주(主)영은 일곱 주(主)영들의 회의에서 아버지-아들 정책과 과정에 관한 결정적인 영향력이다. 이 영은 무한 영에 이미 도달한 그리하여 아들과 아버지를 볼 수 있는 후보자가 된 그 상승하는 존재들에 대한 우두머리 지시자 그리고 충고자이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에서 기원되는 개인성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집단을 돌본다. 일곱 주(主)영들의 연합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대표할 필요가 있게 될 때, 대변하는 이는 항상 4 번 주(主)영이다.

Master Spirit Number Four. Partaking of the combined natures of the Father and the Son, this Master Spirit is the determining influence regarding Father-Son policies and procedures in the council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This Spirit is the chief director and adviser of those ascendant beings who have attained the Infinite Spirit and thus have become candidates for seeing the Son and the Father. He fosters that enormous group of personalities taking origin in the Father and the Son. When it becomes necessary to represent the Father and the Son in the association of the Seven Master Spirits, it is always Master Spirit Number Four who speaks.

16:3.9 이 영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 아들 속성들의, 그의 독특한 연합에 따라서 거대우주의 네 번째 부분을 돌본다. 그는 네 번째 초우주의 본부의 반영 영들과 항상 개인적 연락을 이룬다.

This Spirit fosters the fourth segment of the grand universe in accordance with his peculiar association of the attributes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Eternal Son. He is always in personal liaison with the Reflective Spirits of the headquarters of the fourth superuniverse.

16:3.10 5 번 주(主)영. 우주 아버지와 무한 영의 성격을 절묘하게 혼합하는 이

Master Spirit Number Five. This divine personality who exquisitely blends the character of the Universal

신성한 개인성은 힘 지휘자들, 힘 중심들, 그리고 물리통제자들로 알려진 존재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집단에 대한 충고자이다. 이 영은 또한 아버지와 공동행위자 안에서 기원되는 모든 개인성들을 돌본다. 일곱 주(主)영들의 회의들에서, 아버지-영 태도에 질문이 있으면, 5 번 주(主)영이 항상 대변한다.

Father and the Infinite Spirit is the adviser of that enormous group of beings known as the power directors, power centers, and physical controllers. This Spirit also fosters all personalities taking origin in the Father and the Conjoint Actor. In the council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when the Father-Spirit attitude is in question, it is always Master Spirit Number Five who speaks.

16:3.11 이 영은 우주 아버지와 무한 영의 병합된 행위를 의미하는 듯한 그러한 방법으로 다섯 번째 초우주의 복지를 지도한다. 그는 다섯 번째 초우주의 본부에서 반영 영들과 항상 연락을 이룬다.

This Spirit directs the welfare of the fifth superuniverse in such a way as to suggest the combined action of the Universal Father and the Infinite Spirit. He is always in liaison with the Reflective Spirits at the headquarters of the fifth superuniverse.

16:3.12 **6 번 주(主)영.** 이 신성한 존재는 영원 아들과 무한 영의 병합된 성격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들과 영이 공동으로 창조한 창조체들이 중앙우주에서 만날 때에는 언제든지, 이 주(主)영이 그들의 충고자이다; 일곱 주(主)영들의 회의에서, 영원 아들과 무한 영을 대신하여 공동으로 대변할 필요가 있을 때 언제든지, 6 번 주(主)영이 대답한다.

Master Spirit Number Six. This divine being seems to portray the combined character of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Whenever the creatures jointly created by the Son and the Spirit forgather in the central universe, it is this Master Spirit who is their adviser; and whenever, in the council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it becomes necessary to speak conjointly for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it is Master Spirit Number Six who responds.

16:3.13 이 영은 마치 영원 아들과 무한 영이 그러하듯이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초우주의 생김 일들을 지휘한다. 그는 여섯 번째 초우주의 본부에서 반영 영과 항상 연락을 이룬다.

This Spirit directs the affairs of the sixth superuniverse much as would the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He is always in liaison with the Reflective Spirits at the headquarters of the sixth superuniverse.

16:3.14 **7 번 주(主)영.** 일곱 번째 초우주를 주관하는 영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 아들과 그리고 무한 영의 독특하게 동등한

Master Spirit Number Seven. The presiding Spirit of the seventh superuniverse is a uniquely equal portrayal of the Universal Father, the

초상이다. 모든 삼원일체(三元一體)-기원 존재들을 돌보는 충고자인, 일곱 번째 영은 또한 모든 하보나의 상승하는 순례자들, 아버지, 아들과 영의 병합된 사명활동을 통하여 영광의 법정에도달한 저들 낮은 존재들의 지휘자이며 충고자이기도 하다.

16:3.15 일곱 번째 주(主)영이 조직 면에서 낙원천국 삼위일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 그리고 영적 본성이 세 무한 개인들의, 그들의 신(神) 결합이 낙원천국 삼위일체이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기능이 최극자 하느님의 개인적이며 영적 본성의 근원인, 동등한 비율에서의 공동행위자의 초상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일곱 번째 주(主)영은 진화하는 최극자의 영 개인과의 개인적 그리고 조직적 관계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높은 곳의 주(主)영 회의에서, 아버지, 아들, 영의 병합된 개인적 태도에 대해 투표를 해야 하거나, 또는 최극존재의 영적 태도를 묘사할 필요가 있을 때, 기능하는 분이 7 번 주(主)영이다. 그리하여 선천적으로 그는 일곱 주(主)영의 낙원천국 협의회를 주관하는 의장이 된다.

16:3.16 일곱 주(主)영들 중 어느 누구도 조직상으로 낙원천국 삼위일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칠중 신(神)으로 결합할 때에는, 신(神) 감각—개인적 감각이 아닌—에서 이 결합은, 삼위일체 기능과 연합할 수 있는 기능차원과 동등하다. 이러한 감각에서 “칠중

Eternal Son, and the Infinite Spirit. The Seventh Spirit, the fostering adviser of all triune-origin beings, is also the adviser and director of all the ascending pilgrims of Havona, those lowly beings who have attained the courts of glory through the combined ministry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The Seventh Master Spirit is not organically representative of the Paradise Trinity; but it is a known fact that his personal and spiritual nature is the Conjoint Actor's portraiture in equal proportions of the three infinite persons whose Deity union is the Paradise Trinity, and whose function as such is the source of the personal and spiritual nature of God the Supreme. Hence the Seventh Master Spirit discloses a personal and organic relationship to the spirit person of the evolving Supreme. Therefore in the Master Spirit councils on high, when it becomes necessary to cast the ballot for the combined personal attitude of the Father, Son, and Spirit or to depict the spiritual attitude of the Supreme Being, it is Master Spirit Number Seven who functions. He thus inherently becomes the presiding head of the Paradise council of the Seven Master Spirits.

No one of the Seven Spirits is organically representative of the Paradise Trinity, but when they unite as sevenfold Deity, this union in a deity sense -- not in a personal sense -- - equivalates to a functional level associable with Trinity functions. In this sense the "Sevenfold Spirit" is functionally associable with the

영”은 낙원천국 삼위일체와 기능적으로 연합할 수 있다. 7 번 주(主)영이 때때로 삼위일체 태도들의 확인으로 말하거나, 혹은 오히려 삼중-신(神)-연합의 태도, 낙원천국 삼위일체의 태도에 관한 칠중-영(靈)-연합의 태도에 대한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것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16:3.17 일곱 번째 주(主)영의 다양한 기능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개인적 본성**들에 대한 병합된 묘사로부터 최극자 하느님의 **개인적 태도**의 대표를 거쳐, 낙원천국 삼위일체의 **신(神) 태도**를 나타내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다양하다. 그리고 지배하는 이 영은 어떤 면에서 궁극자와 최극-궁극자의 **태도**들을 비슷하게 표현한다.

16:3.18 그의 여러 수용력에서, 나뉘지 않은 최극위 신(神)의 이해를 성취하려는 그들의 시도에 있는 시간 세계들로부터 상승하는 후보자들의 진보를 직접적으로 후원하는 이는 바로 7 번 주(主)영이다. 그러한 이해는, 최극위 합일에 대한 창조체 파악을 이루기까지 최극존재의 성장하는 체험적 주권 개념과 것처럼 합동하는, 최극위 삼위일체의 존재적 주권에 대한 파악을 포함한다. 이들 세 요소의 창조체 실현은 삼위일체 실체의 하보나 이해와 동등하며 그리고 시간의 순례자에게, 신(神)의 세 무한(無限) 개인들을 발견하려고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에 스며드는, 능력을 부여한다.

Paradise Trinity. It is also in this sense that Master Spirit Number Seven sometimes speaks in confirmation of Trinity attitudes or, rather, acts as spokesman for the attitude of the Sevenfold-Spirit-union regarding the attitude of the Threefold-Deity-union, the attitude of the Paradise Trinity.

The multiple functions of the Seventh Master Spirit thus range from a combined portraiture of the *personal natures* of the Father, Son, and Spirit, through a representation of the *personal attitude* of God the Supreme, to a disclosure of the *deity attitude* of the Paradise Trinity. And in certain respects this presiding Spirit is similarly expressive of the *attitudes* of the Ultimate and of the Supreme-Ultimate.

It is Master Spirit Number Seven who, in his multiple capacities, personally sponsors the progress of the ascension candidates from the worlds of time in their attempts to achieve comprehension of the undivided Deity of Supremacy. Such comprehension involves a grasp of the existential sovereignty of the Trinity of Supremacy so co-ordinated with a concept of the growing experiential sovereignty of the Supreme Being as to constitute the creature grasp of the unity of Supremacy. Creature realization of these three factors equals Havona comprehension of Trinity reality and endows the pilgrims of time with the ability eventually to penetrate the Trinity, to discover the three infinite persons of Deity.

16:3.19 하보나 순례자들이 최극자 하느님을 충분히 발견하지 못하는 무능력은 일곱 번째 주(主)영, 그의 삼원일체(三元一體) 본성이 그러한 특유한 방법에서 최극자의 영 개인의 계시인, 그에 의해 보상된다. 최극자의 개인에 접촉할 수 없는 현재의 우주 시대 동안, 7 번 주(主)영은 개인적 관계들에 있어서 상승하는 창조체들의 하느님을 대신하여 기능한다. 그는 모든 상승자들이, 영광의 중심에 그들이 도달할 때 분명하게 깨닫고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는 하나의 높은 영 존재이다.

The inability of the Havona pilgrims fully to find God the Supreme is compensated by the Seventh Master Spirit, whose triune nature in such a peculiar manner is revelatory of the spirit person of the Supreme. During the present universe age of the noncontactability of the person of the Supreme, Master Spirit Number Seven functions in the place of the God of ascendant creatures in the matter of personal relationships. He is the one high spirit being that all ascenders are certain to recognize and somewhat comprehend when they reach the centers of glory.

16:3.20 이 주(主)영은, 창조에서 우리 자신이 속한 구역인, 일곱 번째 초우주의 본부인, 유버사의 반영 영들과 항상 접촉을 이룬다. 오르본톤에 대한 그의 관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신성한 본성들의 합동하는 혼합의 경이로운 대칭을 나타낸다.

This Master Spirit is always in liaison with the Reflective Spirits of Uversa, the headquarters of the seventh superuniverse, our own segment of creation. His administration of Orvonton discloses the marvelous symmetry of the co-ordinate blending of the divine natures of Father, Son, and Spirit.

4. 주(主)영들의 속성들과 기능들

4. ATTRIBUTES AND FUNCTIONS OF THE MASTER SPIRITS

16:4.1 일곱 주(主)영들은 진화적 우주들에 대한 무한 영의 총명한 대표이다. 그들은 에너지와 마음과 영의 관계에서 셋째근원이며 중심을 대표한다. 그들이 공동행위자의 우주 관리 조정의 합동하는 우두머리들로서 기능하는 반면, 낙원천국 신(神)들의 창조적 활동들에 그들의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일곱 영들이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the full representation of the Infinite Spirit to the evolutionary universes. They represent the Third Source and Center in the relationships of energy, mind, and spirit. While they function as the co-ordinating heads of the universal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Conjoint Actor, do not forget that they have their origin in the creative acts of the Paradise Deities. It is literally true

삼원일체(三元一體) 신(神)의 개인성구현된 물리적 힘, 조화우주 마음, 그리고 영적 현존이며, “모든 우주에 보내지는 하느님의 일곱 영들”인 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다.

16:4.2 주(主)영들은 그들이 절대를 제외하고는. 실체의 모든 우주차원들 위에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초우주 활동들의 모든 차원들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문제들의 모든 위상들에 대한 효과적이고도 완전한 감독자들이다. 필사자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주(主)영들에 관한 매우 많은 것이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들의 활동이 모든 것을-포함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높게 전문화되어 있고, 너무나 예외적으로 물질적이며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 지극하게 영적이기 때문이다. 조화우주 마음의 이 다재다능한 창조자들은 우주 힘 지휘자들의 조상들이며, 그들 자신은 광대하고도 멀리-퍼지는 영-창조체 창조 의 최극 지휘자들이다.

16:4.3 일곱 주(主)영들은 우주 힘 지휘자들 그리고 그 동료들, 거대우주의 물리적 에너지들에 대한 조직과 조정과 조절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실존개체들의 창조자들이다. 그리고 바로 그 주(主)영들이 지역우주들을 형성하고 조직하는 일에서 창조주 아들들을 매우 물질적으로 보조한다.

16:4.4 우리는 주(主)영들의 조화우주-에너지 활동과 분별불가 절대자의 기세

that these Seven Spirits are the personalized physical power, cosmic mind, and spiritual presence of the triune Deity, "the Seven Spirits of God sent forth to all the universe."

The Master Spirits are unique in that they function on all universe levels of reality excepting the absolute. They are, therefore, efficient and perfect supervisors of all phases of administrative affairs on all levels of superuniverse activities. It is difficult for the mortal mind to understand very much about the Master Spirits because their work is so highly specialized yet all-embracing, so exceptionally material and at the same time so exquisitely spiritual. These versatile creators of the cosmic mind are the ancestors of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and are, themselves, supreme directors of the vast and far-flung spirit-creature creation.

The Seven Master Spirits are the creators of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and their associates, entities who are indispensable to the organization, control, and regulation of the physical energies of the grand universe. And these same Master Spirits very materially assist the Creator Sons in the work of shaping and organizing the local universes.

We are unable to trace any personal connection between the cosmic-

기능들 사이에서 어떤 개인적 관계도 추적할 능력이 없다. 주(主)영들의 권한 아래에 있는 에너지 현시들은 모두 낙원천국의 주변으로부터 지휘를 받는다; 그들은 낙원천국의 하부 표면으로 동일시되는 기세현상들과 관련된 어떤 직접적 방법인 것처럼 나타나지는 않는다.

16:4.5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가 다양한 모론시아 힘 감독자들의 기능적 활동들에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주(主)영들의 계시되지 않은 활동들 중 어떤 것과 대면하게 된다. 물리통제자들과 영 사명활동자 둘 모두의 조상인 이들을 제외하고, 누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은 우주실체의 위상—모론시아 본체와 모론시아 마음—을 생기게 하려고 물질적 그리고 영적 에너지들을 병합되고 연합하는 데 그토록 기여할 수 있었겠는가 ?

16:4.6 영적 세계에서 실체의 많은 것이 모론시아 계층, 유란시아에 전혀 알려지지 않는 우주 실체의 위상에 속한다. 개인성 실재의 목표는 영적인 것이다, 그러나 모론시아 창조계가 항상 사이에 개재하며, 필사자 기원인 물질적 영역들과 전진하는 영 지위인 초우주 구체들 사이의 간격에 다리를 놓는다. 주(主)영들이 사람의 낙원천국 상승 계획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영역에서이다.

16:4.7 일곱 주(主)영들은 거대우주에 두루 기능하는 개인적 대표들이다; 그러나 이들 권속 존재들 중 거의

energy work of the Master Spirits and the force function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The energy manifestation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aster Spirits are all directed from the periphery of Paradise; they do not appear to be in any direct manner associated with the force phenomena identified with the nether surface of Paradise.

Unquestionably, when we encounter the functional activities of the various Morontia Power Supervisors, we are face to face with certain of the unrevealed activities of the Master Spirits. Who, aside from these ancestors of both physical controllers and spirit ministers, could have contrived so to combine and associate material and spiritual energies as to produce a hitherto nonexistent phase of universe reality -- morontia substance and morontia mind?

Much of the reality of the spiritual worlds is of the morontia order, a phase of universe reality wholly unknown on Urantia. The goal of personality existence is spiritual, but the morontia creations always intervene, bridging the gulf between the material realms of mortal origin and the superuniverse spheres of advancing spiritual status. It is in this realm that the Master Spirits make their great contribution to the plan of man's Paradise ascension.

The Seven Master Spirits have personal representatives who function throughout the grand universe; but

대부분이 낙원천국 완전의 경로에서 필사자 진보의 상승체계와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관하여는 거의 또는 전혀 계시되지 않았다. 일곱 주(主)영들의 활동 중 많은, 매우 많은 부분은 인간이 납득하지 못하도록 숨겨져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이 낙원천국 상승에 대한 너희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since a large majority of these subordinate beings are not directly concerned with the ascendant scheme of mortal progression in the path of Paradise perfection, little or nothing has been revealed about them. Much, very much, of the activity of the Seven Master Spirits remains hidden from human understanding because in no way does it directly pertain to your problem of Paradise ascent.

16:4.8 우리가 분명한 증명을 제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본톤의 주(主)영이 다음과 같은 활동 구체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It is highly probable, though we cannot offer definite proof, that the Master Spirit of Orvonton exerts a decided influence in the following spheres of activity:

16:4.9 1. 지역우주 생명운반자들의 생명-창시(創始)과정.

1. The life-initiation procedures of the local universe Life Carriers.

16:4.10 2. 지역우주 창조 영에 의해 그 세계들에게 증여된 보조 마음-영들의 생명 활성화.

2. The life activations of the adjutant mind-spirits bestowed upon the worlds by a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

16:4.11 3. 직선적-중력-반응하는 조직된 물질단위들에 의해 드러나는 에너지 현시에서의 동요.

3. The fluctuations in energy manifestations exhibited by the linear-gravity-responding units of organized matter.

16:4.12 4. 분별불가 절대자의 장악에서 충분히 해방될 때, 그래서 직선중력의 직접적 영향에 대해 그리고 우주 힘 지휘자들 및 그들 동료들의 조작에 응답하게 되는, 창발에너지의 행동.

4. The behavior of emergent energy when fully liberated from the grasp of the Unqualified Absolute, thus becoming responsive to the direct influence of linear gravity and to the manipulations of the Universe Power Directors and their associates.

16:4.13 5. 유란시아에 성령으로 알려진, 지역우주 창조 영의 사명활동 영의 증여.

5. The bestowal of the ministry spirit of a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 known on Urantia as the Holy Spirit.

- 16:4.14 6. 유란시아에서 위로자 또는 진리의 영이라고 불리는, 증여 아들들의 영의 그 이후의 증여.
- 16:4.15 7. 지역우주들과 초우주의 반영성 기능구조. 이 비범한 현상과 관련된 많은 특성들은 공동행위자 그리고 최극존재와 관련된 주(主)영들의 활동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합리적으로 설명되거나 이성적으로 납득되기가 매우 어렵다.
- 16:4.16 일곱 주(主)영들의 각가지 작업들을 적절하게 이해하는데 우리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주 활동들의 광대한 범위에서 그들이 아무 상관없는 두 영역들이 있다고 확신한다: 이는 생각조절자들의 증여와 사명활동 그리고 분별불가 절대자의 불가해한 기능들이다.
6. The subsequent bestowal of the spirit of the bestowal Sons, on Urantia called the Comforter or the Spirit of Truth.
7. The reflectivity mechanism of the local universes and the superuniverse. Many features connected with this extraordinary phenomenon can hardly be reasonably explained or rationally understood without postulating the activity of the Master Spirits in association with the Conjoint Actor and the Supreme Being.
- Notwithstanding our failure adequately to comprehend the manifold workings of the Seven Master Spirits, we are confident there are two realms in the vast range of universe activities with which they have nothing whatever to do: the bestowal and ministry of the Thought Adjusters and the inscrutable functions of the Unqualified Absolute.

5. 창조체들에 대한 관계

5. RELATION TO CREATURES

- 16:5.1 거대우주의 각 부분, 각각의 개별 우주와 세계는, 모든 일곱 주(主)영들의 결합된 조언과 지혜의 혜택을 누리지만 오직 한 분의 개인적 손길과 색조를 받는다. 그리고 각 주(主)영의 개인적 본성은 그의 초우주 전체에 가득 퍼지고 그리고 독특하게 조건을 갖춘다.
- 16:5.2 일곱 주(主)영들의 이 개인적 영향을 통하여, 낙원천국과 하보나 밖에 있는 지능 존재들의 모든 계층의 각
- Each segment of the grand universe, each individual universe and world, enjoys the benefits of the united counsel and wisdom of all Seven Master Spirits but receives the personal touch and tinge of only one. And the personal nature of each Master Spirit entirely pervades and uniquely conditions his superuniverse.
- Through this personal influenc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every creature of every order of intelligent beings, outside of Paradise and Havona, must

창조체는 이들 일곱 낙원천국 영들 중 어떤 하나의 선재(先在) 본성을 나타내는 개별존재성의 특징적 표식을 반드시 지녀야만 한다. 일곱 초우주들을 고려할 때, 각각의 원주민 창조체, 사람 또는 천사(天使)는 출생적 정체성의 이 표지를 언제까지나 지닐 것이다.

16:5.3

일곱 주(主)영들은 우주의 진화적 세계들에서 개별 창조체들의 물질적 마음들에 직접적으로 파고들지 않는다.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은 오르본톤의 주(主)영의 마음-영 영향의 개인적 현존을 체험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주(主)영이 한 거주되는 세계의 비교적 초기 진화시기에 개별 필사자 마음과 어떤 식으로든 접촉을 달성한다면, 그것은 각 지역 창조의 운명들을 주관하는, 하느님의 창조주 아들의 배우자이자 동료인, 그 지역우주 창조 영의 사명활동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그러나 바로 이 창조 어머니 영은, 본성과 성격에 있어서 오르본톤의 그 주(主)영과 매우 비슷하다.

16:5.4

주(主)영의 물리적 표식은 사람의 물질적 기원의 일부분이다. 모론시아 생애 전체는 동일한 이 주(主)영의 계속되는 영향력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그러한 상승하는 필사자가 이 동일한 감독하는 영의 특징적 표식을 결코 충분히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은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주(主)영의 날인은 필사자 상승의 모든 하보나-이전(以前) 단계의 바로 그 실재에 기본적이다.

bear the characteristic stamp of individuality indicative of the ancestral nature of some one of these Seven Paradise Spirits. As concerns the seven superuniverses, each native creature, man or angel, will forever bear this badge of natal identification.

The Seven Master Spirits do not directly invade the material minds of the individual creatures on the evolutionary worlds of space. The mortals of Urantia do not experience the personal presence of the mind-spirit influence of the Master Spirit of Orvonton. If this Master Spirit does attain any sort of contact with the individual mortal mind during the earlier evolutionary ages of an inhabited world, it must occur through the ministry of the local universe Creative Spirit, the consort and associate of the Creator Son of God who presides over the destinies of each local creation. But this very Creative Mother Spirit is, in nature and character, quite like the Master Spirit of Orvonton.

The physical stamp of a Master Spirit is a part of man's material origin. The entire morontia career is lived under the continuing influence of this same Master Spirit. It is hardly strange that the subsequent spirit career of such an ascending mortal never fully eradicates the characteristic stamp of this same supervising Spirit. The impress of a Master Spirit is basic to the very existence of every pre-Havona stage of mortal ascension.

16:5.5 뚜렷한 개인성이 진화적 필사자들의 삶 체험 안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들은 각 초우주 안에서의 특징이며, 지배하는 그 주(主)영의 본성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고, 그러한 상승자들이 10 억 개의 하보나 교육 구체들에서 만나는 긴 훈련과 통합시키는 교육단련에 복종하게 된 이후라 하더라도 결코 충분히 지워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그 이후의 강력한 낙원천국 문화도 초우주 기원의 표시를 뿌리째 뽑아내지 못한다. 영원에 두루, 상승하는 필사자는 그가 탄생된 초우주를 지배하는 영을 표시하는 특색들을 나타낼 것이다. 심지어는 최종의 무리단 안에서도, 진화적 창조에 대한 **완벽한** 삼위일체 관계에 도달하거나 그것을 묘사하도록 요구될 때, 각 초우주로부터 한 명씩, 일곱 최종자로 이루어진 집단이 항상 이루어진다.

The distinctive personality trends exhibited in the life experience of evolutionary mortals, which are characteristic in each superuniverse, and which are directly expressive of the nature of the dominating Master Spirit, are never fully effaced, not even after such ascenders are subjected to the long training and unifying discipline encountered on the one billion educational spheres of Havona. Even the subsequent intense Paradise culture does not suffice to eradicate the earmarks of superuniverse origin. Throughout all eternity an ascendant mortal will exhibit traits indicative of the presiding Spirit of his superuniverse of nativity. Even in the Corps of the Finality, when it is desired to arrive at or to portray a *complete* Trinity relationship to the evolutionary creation, always a group of seven finaliters is assembled, one from each superuniverse.

6. 조화우주 마음

6. THE COSMIC MIND

16:6.1 주(主)영들은 거대우주의 지적 잠재, 조화우주 마음의 칠중 근원이다. 이 조화우주 마음은 셋째근원이며 중심의 마음에 대한 하위-절대적 현시이며, 어떤 면에서는 진화하는 최극존재의 마음에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The Master Spirits are the sevenfold source of the cosmic mind, the intellectual potential of the grand universe. This cosmic mind is a subabsolute manifestation of the mind of the Third Source and Center and, in certain ways, is functionally related to the mind of the evolving Supreme Being.

16:6.2 유란시아와 같은 세계에서, 우리는 인간 종족들의 일들에서 일곱 주(主)영들의 직접적 영향력을

On a world like Urantia we do not encounter the direct influence of the Seven Master Spirits in the affairs of

마주치지 않는다. 너희는 네바돈의 창조 영의 즉각적 영향 아래에서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일한 주(主)영들이 모든 창조체 마음의 기본 반응들을 지배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에 거주하는, 저들 개별존재들의 삶에서 기능하도록 지역우주들 안에 특화되어온 지적 그리고 영적 잠재들의 실제적 근원이기 때문이다.

16:6.3 조화우주 마음이 있다는 그 사실이 인간 그리고 초(超)인간 마음들의 다양한 유형들의 동족관계를 설명한다. 유사(類似) 영들이 서로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유사 마음들 역시 매우 우애적이고 서로간의 협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인간 마음들은 때로 놀라운 유사성과 설명할 수 없는 공감의 경로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16:6.4 조화우주 마음의 전체 개인성 연합들 안에는 “실체 응답”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본질특성이 존재한다. 과학, 철학 그리고 종교의 선형적 가정(假定)에 내포된 것의 무력한 희생자들이 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주는 것은 의지 창조체들의 이 우주적인 조화우주의 수여자질이다. 조화우주 마음의 이 실체 감수성은, 에너지-물질이 중력에 응답하는 것과 똑같이, 실체의 일정 위상들에 응답한다. 이들 초물질 실체들이 조화우주의 마음에 그렇게 응답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

the human races. You live under the immediate influence of the Creative Spirit of Nebadon. Nevertheless these same Master Spirits dominate the basic reactions of all creature mind because they are the actual sources of the intellectual and spiritual potentials which have been specialized in the local universes for function in the lives of those individuals who inhabit the evolutionary worlds of time and space.

The fact of the cosmic mind explains the kinship of various types of human and superhuman minds. Not only are kindred spirits attracted to each other, but kindred minds are also very fraternal and inclined towards co-operation the one with the other. Human minds are sometimes observed to be running in channels of astonishing similarity and inexplicable agreement.

There exists in all personality associations of the cosmic mind a quality which might be denominated the "reality response." It is this universal cosmic endowment of will creatures which saves them from becoming helpless victims of the implied a priori assumptions of science, philosophy, and religion. This reality sensitivity of the cosmic mind responds to certain phases of reality just as energy-material responds to gravity. It would be still more correct to say that these supermaterial realities so respond to the mind of the cosmos.

- 16:6.5 조화우주 마음은 우주 실체의 세 차원에서 반드시 응답한다(응답을 인식한다). 이 응답들은 분명하게-추론하는 그리고 깊이-사색하는 마음들에게 스스로-명백하다. 이들 실체의 차원은 다음과 같다:
- The cosmic mind unfailingly responds (recognizes response) on three levels of universe reality. These responses are self-evident to clear-reasoning and deep-thinking minds. These levels of reality are:
- 16:6.6 1. **원인**—물리적 의미들에서의 실제 권역, 논리적 균일성의 과학영역, 사실과 비(非)사실의 차별화, 조화우주 응답에 근거한 반영된 결론. 이것은 조화우주 분간의 수학적 형태이다.
1. *Causation* -- the reality domain of the physical senses, the scientific realms of logical uniformity, the differentiation of the factual and the nonfactual, reflective conclusions based on cosmic response. This is the mathematical form of the cosmic discrimination.
- 16:6.7 2. **의무**—철학적 영역에서의 도덕의 실제 권역, 이성의 경기장, 상대적인 옳고 그릇됨에 대한 인식. 이것은 조화우주 분간의 사법적(司法的) 형태이다.
2. *Duty* -- the reality domain of morals in the philosophic realm, the arena of reason, the recognition of relative right and wrong. This is the judicial form of the cosmic discrimination.
- 16:6.8 3. **경배**—종교적 체험에 있는 실체의 영적 권역, 신성한 동료관계의 개인적 실현, 영 가치들에 대한 인식, 영원한 생존에 대한 확신, 하느님의 하인 지위로부터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기쁨과 해방으로의 상승. 이것은 조화우주 마음의 가장 높은 통찰력, 조화우주 분간의 경건하고 경배 가득한 형태이다.
3. *Worship* -- the spiritual domain of the reality of religious experience, the personal realization of divine fellowship, the recognition of spirit values, the assurance of eternal survival, the ascent from the status of servants of God to the joy and liberty of the sons of God. This is the highest insight of the cosmic mind, the reverential and worshipful form of the cosmic discrimination.
- 16:6.9 이들 과학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 통찰력, 이들 조화우주 응답들은, 모든 의지 창조체들에게 증여되는 조화우주 마음 안에 태생적으로 들어 있다. 생명을 사는 체험은 이들 세 조화우주 직관을 발현하는 데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영적 사고(思考)의 자아-의식에
- These scientific, moral, and spiritual insights, these cosmic responses, are innate in the cosmic mind, which endows all will creatures. The experience of living never fails to develop these three cosmic intuitions; they are constitutive in the self-consciousness of reflective thinking. But it is sad to record that so few

구조적으로 들어 있다. 그러나 유란시아에서는 이러한 용기 있고 독립적인 조화우주 사고(思考)의 본질특성을 경작하는 일에 기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기록하자니 슬프다.

16:6.10 지역우주 마음 증여에 있어서, 조화우주 마음의 이 세 가지 통찰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과학과 철학 그리고 종교의 영역들에서 이성적이고 자아-의식적인 개인성으로서 기능하게 만드는, 어떤 선형적 가정들을 구성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무한자의 이들 세 현시의 실체에 대한 인식은 자아-계시의 조화우주 기법에 의해서이다. 물질-에너지는 감각의 수학적 논리에 의해 인식되며; 마음-이성은 그것의 도덕적 의무를 직관적으로 알며; 영-신앙(경배)은 영적 체험에 있는 실체의 종교이다. 반영적 사고(思考)에서 이들 세 기본요소들은 개인성 개발에서 통합되고 합동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 각각의 기능들에서 불균형이 되고 그리고 사실상 관련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통일될 때, 그들은 실제적 과학, 도덕적 철학, 그리고 진정한 종교적 체험의 상호관련에 존재하는 강력한 성격을 산출한다. 그리고 사물, 의미, 가치들과 함께 그리고 그 안에서 겪는 사람의 체험에 목적을 지닌 유효성, 실체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이들 세 조화우주 직관들이다.

16:6.11 교육의 목적은 인간 마음의 이들

persons on Urantia take delight in cultivating these qualities of courageous and independent cosmic thinking.

In the local universe mind bestowals, these three insights of the cosmic mind constitute the a priori assumptions which make it possible for man to function as a rational and self-conscious personality in the realms of science, philosophy, and religion. Stated otherwise, the recognition of the *reality* of these three manifestations of the Infinite is by a cosmic technique of self-revelation. Matter-energy is recognized by the mathematical logic of the senses; mind-reason intuitively knows its moral duty; spirit-faith (worship) is the religion of the reality of spiritual experience. These three basic factors in reflective thinking may be unified and co-ordinated in personality development, or they may become disproportionate and virtually unrelated in their respective functions. But when they become unified, they produce a strong character consisting in the correlation of a factual science, a moral philosophy, and a genuine religious experience. And it is these three cosmic intuitions that give objective validity, reality, to man's experience in and with things, meanings, and values.

It is the purpose of education to

타고난 자질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며; 저들을 표현하기 위한 문명의; 저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삶의 체험의; 저들을 고결하게 하기 위한 종교의; 저들을 통합시키기 위한 개인성의 타고난 자질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develop and sharpen these innate endowments of the human mind; of civilization to express them; of life experience to realize them; of religion to ennoble them; and of personality to unify them.

7. 도덕, 덕목, 그리고 개인성

7. MORALS, VIRTUE, AND PERSONALITY

16:7.1 지능만으로는 도덕적 본성을 설명할 수 없다. 도덕과 덕목은 인간 개인성에 원초적이다. 도덕적 직관, 의무의 인식은 인간 마음 자질의 한 요소이며 인간 본성의 양도할 수 없는 다른 것들: 과학적 호기심과 영적 통찰력과 연합되어 있다. 사람의 정신은 그의 동물 친족들의 그것을 훨씬 초월하지만, 인간을 동물 세계로부터 특별하게 구별시키는 것은 그의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본성들이다.

Intelligence alone cannot explain the moral nature. Morality, virtue, is indigenous to human personality. Moral intuition, the realization of duty, is a component of human mind endowment and is associated with the other inalienables of human nature: scientific curiosity and spiritual insight. Man's mentality far transcends that of his animal cousins, but it is his moral and religious natures that especially distinguish him from the animal world.

16:7.2 동물의 선택하는 응답은 습성이라는 운동 차원에 제한되어 있다. 비교적 고등 동물들의 통찰력처럼 보이는 것들은 운동 차원에 있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운동에서의 체험 이후에서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은 모든 탐구 또는 실험보다 그 이전에 과학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다.

The selective response of an animal is limited to the motor level of behavior. The supposed insight of the higher animals is on a motor level and usually appears only after the experience of motor trial and error. Man is able to exercise scientific, moral, and spiritual insight prior to all exploration or experimentation.

16:7.3 오로지 개인성만이 그 어떤 것이 행해지기 전에 무엇이

Only a personality can know what it is doing before it does it; only

이루어질지를 알 수 있다; 오직 개인성들만이 체험 이전에 통찰력을 갖는다. 개인성은 그것을 움직이기 이전에 알 수 있으며 그러므로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살펴 아는 것으로서도 배울 수 있다. 비(非)개인적 동물은 보통 움직임으로만 배운다.

personalities possess insight in advance of experience. A personality can look before it leaps and can therefore learn from looking as well as from leaping. A nonpersonal animal ordinarily learns only by leaping.

16:7.4 체험의 결과로서, 동물은 한 목표를 달성하는 다른 방법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고 누적된 체험에 기초된 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성은 그 목표 자체를 실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보람된-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지능 혼자서는 분간되지 않는 결말들에 도달하는 최선의 수단들을 분간해 낼 수 있지만, 도덕적 존재는 그로 하여금 결말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수단들 사이에서도 분간할 수 있게 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존재는 덕목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지능적이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것인지를 안다.

As a result of experience an animal becomes able to examine the different ways of attaining a goal and to select an approach based on accumulated experience. But a personality can also examine the goal itself and pass judgment on its worth-whileness, its value. Intelligence alone can discriminate as to the best means of attaining indiscriminate ends, but a moral being possesses an insight which enables him to discriminate between ends as well as between means. And a moral being in choosing virtue is nonetheless intelligent. He knows what he is doing, why he is doing it, where he is going, and how he will get there.

16:7.5 사람이 그의 필사자 분투의 결말들을 분간해 내지 못할 때, 그는 실재의 동물적 차원에서 기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개인적 존재로서의 그의 조화우주-마음 자질의 전체를 구성하는 한 부분인 물질적 총명, 도덕적 분간, 그리고 영적 통찰력이라는 뛰어난 장점들을

When man fails to discriminate the ends of his mortal striving, he finds himself functioning on the animal level of existence. He has failed to avail himself of the superior advantages of that material acumen, moral discrimination, and spiritual insight which are an integral part of his cosmic-mind endowment as a personal being.

스스로 활용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16:7.6 덕목은 정의(正義)-조화우주와의 일치—이다. 덕목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들을 밝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들을 아는 것이다. 덕목은 단순한 지식도 아니고 지해도 아니며, 오히려 조화우주 성취의 상승 차원 달성에 있는 진보적 체험의 실체이다. 필사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악보다 선을 계속 선택함으로써 덕목은 실현되며, 그러한 선택 능력은 도덕적 본성의 소유에 대한 증명이다.

Virtue is righteousness -- conformity with the cosmos. To name virtues is not to define them, but to live them is to know them. Virtue is not mere knowledge nor yet wisdom but rather the reality of progressive experience in the attainment of ascending levels of cosmic achievement. In the day-by-day life of mortal man, virtue is realized by the consistent choosing of good rather than evil, and such choosing ability is evidence of the possession of a moral nature.

16:7.7 선과 악 사이의 사람의 선택은 자신의 도덕적 본성의 날카로움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무지와 미성숙과 망상과 같은 그러한 영향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비례 감각 역시 덕목의 실천에 관련되는데 왜냐하면 보다 큰 것 대신에 더 작은 것이 왜곡이나 기만의 결과로서 선택되었을 때, 악이 저질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 영역의 덕목의 실행에는 상대적인 평가 또는 비교하는 측정의 기술이 들어간다.

Man's choosing between good and evil is influenced, not only by the keenness of his moral nature, but also by such influences as ignorance, immaturity, and delusion. A sense of proportion is also concerned in the exercise of virtue because evil may be perpetrated when the lesser is chosen in the place of the greater as a result of distortion or deception. The art of relative estimation or comparative measurement enters into the practice of the virtues of the moral realm.

16:7.8 사람의 도덕적 본성은 측정하는 기술, 의미들을 세밀히 헤아리는 그의 능력에 포함된 분간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도덕적 선택은 영적 가치들의 의식을 가져오는 조화우주 통찰력 없이는 아무 쓸모없을 것이다. 지능이라는 관점에서는, 사람은 그가 개인성을

Man's moral nature would be impotent without the art of measurement, the discrimination embodied in his ability to scrutinize meanings. Likewise would moral choosing be futile without that cosmic insight which yields the consciousness of spiritual values. From the standpoint of intelligence, man ascends to the level of a moral

부여받기 때문에 도덕적 존재의 차원으로 상승한다.

being because he is endowed with personality.

16:7.9 도덕은 결코 법이나 강제로 향상될 수 없다. 그것은 개인적 그리고 자유의지의 문제이며 그리고 도덕적으로 향기로운 개인들과 도덕적으로 비교적 덜 응답하는 자들, 그러나 또한 어느 정도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자들과 접촉에서의 감화로써 확산되어야만 한다.

Morality can never be advanced by law or by force. It is a personal and freewill matter and must be disseminated by the contagion of the contact of morally fragrant persons with those who are less morally responsive, but who are also in some measure desirous of doing the Father's will.

16:7.10 도덕적 행동들은 가장 높은 지능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뛰어난 결말들을 택함에서 또한 동시에 이 결말들을 달성하는 도덕적 수단들을 선택함에서, 선택하는 분간에 따라 지도되는, 그러한 인간 행위이다. 그러한 행위성은 고결하다. 최극 덕목은, 그리하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전심을 다하여 택한다.

Moral acts are those human performances which are characterized by the highest intelligence, directed by selective discrimination in the choice of superior ends as well as in the selection of moral means to attain these ends. Such conduct is virtuous. Supreme virtue, then, is wholeheartedly to choose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8. 유란시아 개인성

8. URANTIA PERSONALITY

16:8.1 수많은 계층의 개인성들이 우주 실체성의 다양한 차원에서 기능하듯이 우주 아버지는 그들에게 개인성을 증여한다. 유란시아 인간 존재들은 하느님의 상승하는 아들들의 차원에서 기능하는, 유한-필사 유형의 개인성을 부여받았다.

The Universal Father bestows personality upon numerous orders of beings as they function on diverse levels of universe actuality. Urantia human beings are endowed with personality of the finite-mortal type, functioning on the level of the ascending sons of God.

16:8.2 우리가 개인성을 정의(定意)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더라도, 우주 아버지가 자신의 증여된 개인성이 그 속에서 그리고 그 위에서 그리고 그와 함께

Though we can hardly undertake to define personality, we may attempt to narrate our understanding of the known factors which go to make up the ensemble of material, mental, and

가능하도록 기능구조를 구성하는 상호연합인 물질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에너지들의 전체총화를 이루게 하는 알려진 요소들에 대한 우리의 납득을 설명하는 시도는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spiritual energies whose interassociation constitutes the mechanism wherein and whereon and wherewith the Universal Father causes his bestowed personality to function.

16:8.3 개인성은 그 실재가 생각조절자의 증여와는 독립적이고 그것보다 앞서서, 기원적 본성을 갖는 독특한 자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자의 현존은 개인성의 질적 현시를 증대시킨다. 생각조절자들은,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아올 때,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개인성은 다양하고 기원적이고 배타적이다; 개인성의 현시는, 개인성 현시를 위한 유기적 매체를 구성하는 물질적, 마음적, 그리고 영적 본성을 갖는 연합된 에너지들의 본성과 본질특성들에 의해 더욱 조건을 갖추고 그리고 자격이 분별화 된다.

Personality is a unique endowment of original nature whose existence is independent of, and antecedent to, the bestowal of the Thought Adjuster. Nevertheless, the presence of the Adjuster does augment the qualitative manifestation of personality. Thought Adjusters, when they come forth from the Father, are identical in nature, but personality is diverse, original, and exclusive; and the manifestation of personality is further conditioned and qualified by the nature and qualities of the associated energies of a material, mindal, and spiritual nature which constitute the organismal vehicle for personality manifestation.

16:8.4 개인성들은 비슷할 수 있지만 결코 같지 않다. 주어진 계열, 유형, 계층, 또는 원형틀을 갖는 개인들은 서로 닮을 수 있고 또 그러하지만, 그들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개인성은 우리가 아는 한 개별존재의 그 모습이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한 존재가 언젠가 미래 시간에 형태, 마음, 또는 영 상태에서 변화하는 본성과 범위에 상관없이 알아볼 수 있게 한다. 개인성은 그의 개인성의 표현과 현시인 매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가 얼마나 바뀌어 올 수 있었던가에 상관없이, 우리로

Personalities may be similar, but they are never the same. Persons of a given series, type, order, or pattern may and do resemble one another, but they are never identical. Personality is that feature of an individual which we *know*, and which enables us to identify such a being at some future time regardless of the nature and extent of changes in form, mind, or spirit status. Personality is that part of any individual which enables us to recognize and positively identify that person as the one we have previously known, no matter how much he may have changed because of the modification of the vehicle of

하여금 그 전에 우리가 알아 왔던 자로 그 개인을 알아보고 확실히 동일시하게 만드는 한 개별존재의 바로 그 부분이다.

expression and manifestation of his personality.

16:8.5 창조체 개인성은, 자아-현시와 필사자 반응 습성의 특징적 현상인 두 가지: 즉, 자아-의식 그리고 연합된 상대적 자유의지에 의해 구별된다.

Creature personality is distinguished by two self-manifesting and characteristic phenomena of mortal reactive behavior: self-consciousness and associated relative free will.

16:8.6 자아-의식은 개인성 실제성에 대한 지적 깨달음에 있다; 그것은 다른 개인성들의 실체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그것은 조화우주 실체들 안에서 그리고 함께하는 개별존재화된 체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우주의 개인성 관계들 안에서의 정체성 지위의 달성에 상당한다. 자아-의식은 마음 봉사사명의 실제성의 인식과 창조적 그리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의지의 상대적 독립이 실현되었음을 암시한다.

Self-consciousness consists in intellectual awareness of personality actuality; it includes the ability to recognize the reality of other personalities. It indicates capacity for individualized experience in and with cosmic realities, equivalating to the attainment of identity status in the personality relationships of the universe. Self-consciousness connotes recognition of the actuality of mind ministrations and the realization of relative independence of creative and determinative free will.

16:8.7 인간 개인성의 자아-의식을 특징짓는 상대적 자유의지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관여된다:

The relative free will which characterizes the self-consciousness of human personality is involved in:

1. 도덕적 결정, 가장 높은 지혜.
2. 영적 선택, 진리 식별.
3. 사심 없는 사랑, 형제신분의 봉사.
4. 목적이 있는 협동, 집단 충성심.
5. 조화우주 통찰력, 우주 의미들의 파악.

1. Moral decision, highest wisdom.
2. Spiritual choice, truth discernment.
3. Unselfish love, brotherhood service.
4. Purposeful co-operation, group loyalty.
5. Cosmic insight, the grasp of universe meanings.
6. Personality dedication,

6. 개인성 헌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전심으로 헌신함.

wholehearted devotion to doing the Father's will.

7. 경배, 신성한 가치들에 대한 진지한 추구하고 신성한 가치-증여자에 대한 전심으로의 사랑.

7. Worship, the sincere pursuit of divine values and the wholehearted love of the divine Value-Giver.

16:8.8 인간 개인성의 유란시아 유형은 생명 활성화의 전기화학적 계층에 속하는 그리고 부모에 의해 재생산되는 원형들을 갖는 조화우주 마음의 오르본톤 계열들의 네바돈 계층으로 자질부여 받은, 네바돈 유기체 유형의 행성에서 변경을 이루는 물리적 기능구조 안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아도 된다. 그러한 마음-자질부여된 필사자 기능구조에 개인성이라는 신성한 선물의 증여는, 조화우주 시민신분이라는 존엄성을 부여하며 그러한 필사 창조체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조화우주의 기본적인 세 마음 실체들에 대한 구조적 인식에 즉시 반응하게 되도록 만든다:

The Urantia type of human personality may be viewed as functioning in a physical mechanism consisting of the planetary modification of the Nebadon type of organism belonging to the electrochemical order of life activation and endowed with the Nebadon order of the Orvonton series of the cosmic mind of parental reproductive pattern. The bestowal of the divine gift of personality upon such a mind-endowed mortal mechanism confers the dignity of cosmic citizenship and enables such a mortal creature forthwith to become reactive to the constitutive recognition of the three basic mind realities of the cosmos:

1. 물리적 원인성에서의 균일성에 대한 수학적 또는 논리적 인식.
2. 도덕적 행위성에 대한 책무를 이성으로 인식.
3. 인간성의 사랑하는 봉사와의 연합되어진, 신(神)에 대한 동료관계에서의 경배를 신앙으로-파악.

1. The mathematical or logical recognition of the uniformity of physical causation.
2. The reasoned recognition of the obligation of moral conduct.
3. The faith-grasp of the fellowship worship of Deity, associated with the loving service of humanity.

16:8.9 그러한 어떤 개인성 자질부여의 총명한 기능은 신(神) 동족관계에

The full function of such a personality endowment is the beginning

대하여 처음 시작되는 인식이다. 아버지 하느님의 전(前)개인적 단편이 내주하는, 그러한 자아신분은 정말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하느님의 영적 아들이다. 그러한 창조체는 신성한 현존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수용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성들의 낙원천국 아버지의 개인성-중력 순환회로에 대한 반응적 응답을 나타내기도 한다.

realization of Deity kinship. Such a selfhood, indwelt by a prepersonal fragment of God the Father, is in truth and in fact a spiritual son of God. Such a creature not only discloses capacity for the reception of the gift of the divine presence but also exhibits reactive response to the personality-gravity circuit of the Paradise Father of all personalities.

9. 인간 의식의 실체

9. REALITY OF HUMAN CONSCIOUSNESS

16:9.1 조화우주-마음이-자질부여된, 조절자가-내주하는, 개인적 창조체는 에너지 실체, 마음 실체 그리고 영 실체에 대한 타고난 인식-실현을 지닌다. 의지 창조체는 사실과 법과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식별하는 능력을 그렇게 갖추고 있다. 양도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인간 의식 이외에, 모든 인간 체험은, 조화우주 인식의 이들 세 우주 실체 응답들의 **통합**에 유효성의 직관적 실현이 덧붙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정말로 주관적이다.

The cosmic-mind-endowed, Adjuster-indwelt, personal creature possesses innate recognition-realization of energy reality, mind reality, and spirit reality. The will creature is thus equipped to discern the fact, the law, and the love of God. Aside from these three inalienables of human consciousness, all human experience is really subjective except that intuitive realization of validity attaches to the *unification* of these three universe reality responses of cosmic recognition.

16:9.2 하느님을-식별하는 필사자는 생존하는 혼의 진화에서 이들 세 가지 조화우주 본질특성들의 통합 가치를 인식할 수 있으며, 그것은 불멸의 혼을 복제하기 위하여 내주하는 신성한 영과 협력하여 도덕적 마음이 일하는 물리적 장막 안에서의 사람의 최극 사업이다. 초기의 시작부터 그 혼은 **실제적**이다; 그것은 조화우주 생존 본질특성들을 갖고 있다.

The God-discerning mortal is able to sense the unification value of these three cosmic qualities in the evolution of the surviving soul, man's supreme undertaking in the physical tabernacle where the moral mind collaborates with the indwelling divine spirit to dualize the immortal soul. From its earliest inception the soul is *real*; it has cosmic survival qualities.

16:9.3 만약에 필사 사람이 자연적 죽음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그 인간 체험의 실제적인 영적 가치들은 생각조절자의 이어지는 체험의 일부분으로 생존한다. 그러한 살아남지 못하는 존재의 개인성 가치들은 실제화하는 최극존재의 개인성 안에서 하나의 요소로 잔존한다. 잔존하는 그러한 개인성의 본질특성들은 정체성은 빼앗겼지만 육신에서의 필사 삶 동안에 누적된 체험적 가치들은 그렇지 않다. 정체성의 생존은 모론시아 지위의 불멸의 혼의 생존과 증가하는 신성한 가치에 달려있다. 개인성 정체성은 그 혼의 생존 안에서 그리고 그에 의해서 생존한다.

If mortal man fails to survive natural death, the real spiritual values of his human experience survive as a part of the continuing experience of the Thought Adjuster. The personality values of such a nonsurvivor persist as a factor in the personality of the actualizing Supreme Being. Such persisting qualities of personality are deprived of identity but not of experiential values accumulated during the mortal life in the flesh. The survival of identity is dependent on the survival of the immortal soul of morontia status and increasingly divine value. Personality identity survives in and by the survival of the soul.

16:9.4 인간의 자아-의식은, 의식적인 자아가 결코 아니고 자아들의 실체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그러한 자각이 상호적임을 의미한다; 즉 아는 것만큼 알려지는 것이 자아이다. 이것은 사람의 사회생활에서는 순전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안에서 사는 하느님의 현존의 실체에 대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절대적으로 동료 존재의 실체에 대해 확신되어갈 수는 없다. 사회적 의식이 하느님-의식과 같이 양도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문화적으로 개발되는 것이며 지식, 표상, 그리고 사람의 구성 자질—과학, 도덕 그리고 종교—의 기여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화된

Human self-consciousness implies the recognition of the reality of selves other than the conscious self and further implies that such awareness is mutual; that the self is known as it knows. This is shown in a purely human manner in man's social life. But you cannot become so absolutely certain of a fellow being's reality as you can of the reality of the presence of God that lives within you. The social consciousness is not inalienable like the God-consciousness; it is a cultural development and is dependent on knowledge, symbols, and the contributions of the constitutive endowments of man -- science, morality, and religion. And these cosmic gifts, socialized, constitute civilization.

조화우주 선물들이 문명을 이룬다.

16:9.5 문명은 그것들이 조화우주적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그것들은 종족의 개별존재들안에 타고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구성 요소들—과학, 도덕, 그리고 종교—의 병합된 기여에 의해 양육되어야만 한다. 문명들은 왔다가 가지만, 과학과 도덕과 종교는 항상 그 붕괴 속에 생존한다.

Civilizations are unstable because they are not cosmic; they are not innate in the individuals of the races. They must be nurtured by the combined contributions of the constitutive factors of man -- science, morality, and religion. Civilizations come and go, but science, morality, and religion always survive the crash.

16:9.6 예수는 사람에게 하느님을 계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대한 새로운 계시를 주었다. 예수의 삶에서 너희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본다. 예수가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가득 하느님을 지니고 있었기에 사람은 그렇게 아름답게 참이 되어간다, 그리고 하느님의 실현(인식)은 양도될 수 없으며 모든 사람 안에 구성요소로서 들어있다.

Jesus not only revealed God to man, but he also made a new revelation of man to himself and to other men. In the life of Jesus you see man at his best. Man thus becomes so beautifully real because Jesus had so much of God in his life, and the realization (recognition) of God is inalienable and constitutive in all men.

16:9.7 아버지의 본능은 제외하고, 사심 없음은 통틀어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다른 개인들이 자연적으로 사랑 받거나 사회적으로 봉사 받는 것은 아니다. 사심 없고 그리고 애타적인 사회 질서를 만드는 것은 이성과 도덕 그리고 종교에 대한 충동, 하느님-인식에 대한 계몽을 요구한다. 사람 자신의 개인성 알아차림, 자아-의식은 또한, 타고난 타인-알아차림의 바로 이 사실,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신성한 것에 이르는, 다른 개인성의 실체를 인식하고 파악하는 이 타고난

Unselfishness, aside from parental instinct, is not altogether natural; other persons are not naturally loved or socially served. It requires the enlightenment of reason, morality, and the urge of religion, God-knowingness, to generate an unselfish and altruistic social order. Man's own personality awareness, self-consciousness, is also directly dependent on this very fact of innate other-awareness, this innate ability to recognize and grasp the reality of other personality, ranging from the human to the divine.

능력에 직접적으로 달려있다.

16:9.8 사심 없는 사회의식은, 바탕이, 종교의식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객관적인 경우에 그렇다. 아니라면, 그것은 순전히 주관적인 철학적 추상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 사랑이 빠져있다. 오직 하나님을-아는 개별존재만이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Unselfish social consciousness must be, at bottom, a religious consciousness; that is, if it is objective; otherwise it is a purely subjective philosophic abstraction and therefore devoid of love. Only a God-knowing individual can love another person as he loves himself.

16:9.9 자아-의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아버지와 아들, 창조주와 창조체. 공동체 의식(意識)이다: 인간의 자아-의식에는 네 가지 우주-실체 실현들이 숨어 있고 선천적이다:

Self-consciousness is in essence a communal consciousness: God and man, Father and son, Creator and creature. In human self-consciousness four universe-reality realizations are latent and inherent:

1. 지식의 추구, 과학의 논리.
2. 도덕적 가치의 추구, 의무 감각.
3. 영적 가치의 추구, 종교적 체험.
4. 개인성 가치의 추구, 하나님의 실체를 개인성으로 깨닫는 능력 그리고 동료 개인성들과 가지는 우리의 형제우애관계에서의 동시 발생하는 실현을 깨닫는 능력.

1. The quest for knowledge, the logic of science.
2. The quest for moral values, the sense of duty.
3. The quest for spiritual values, the religious experience.
4. The quest for personality values, the ability to recognize the reality of God as a personality and the concurrent realization of our fraternal relationship with fellow personalities.

16:9.10 너희가 이미 하나님을 너희 창조주 아버지로 의식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창조체 형제로서의 사람에 대해 의식하기 시작한다. 아버지신분은 우리가 우리들을 설득하여 형제신분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관계이다. 그리고 아버지신분은 모든 도덕적

You become conscious of man as your creature brother because you are already conscious of God as your Creator Father. Fatherhood is the relationship out of which we reason ourselves into the recognition of brotherhood. And Fatherhood becomes, or may become, a universe reality to all moral creatures because

창조체들에게 우주실체가 되거나
될 수 있는데, 이는 아버지 자신이
그러한 모든 존재들에게
개인성으로 증여하였고 우주
개인성 순환회로의 장악 안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첫째는
그분 이시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의 안에
있기** 때문이다.

16:9.11 조화우주 마음이 그 자체의 근원,
무한 영의 무한 마음을 자아-
의식적으로 알아차려야만 하고,
그리고 동시에, 멀리-퍼지는
우주들의 물리적 실체, 영원 아들의
영적 실체, 그리고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 실체를 의식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인가?

16:9.11 [유버사로부터 온 우주 검열자에 의해
후원됨]

the Father has himself bestowed
personality upon all such beings and
has encircuited them within the grasp
of the universal personality circuit.
We worship God, first, because he is,
then, because *he is in us*, and last,
because *we are in him*.

Is it strange that the cosmic mind
should be self-consciously aware of
its own source, the infinite mind of
the Infinite Spirit, and at the same
time conscious of the physical reality
of the far-flung universes, the spiritual
reality of the Eternal Son, and the
personality re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Sponsored by a Universal Censor
from Uversa.